

'96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전망과 SG 발동 가능성

- 홍보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작년 농산물의 장기수급전망을 발표했는데, 과거 이러한 예측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어쨌든 경험상 거의 맞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요 문제는 정책의향이 선행되어 실패를 무시한 작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계의 식량상황을 반영한 일본의 수급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찰이 감지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금년만 보더라도 외환변동, 세계적으로 사료곡물의 부족,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 지구환경의 악화 등이 직접 일본의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지급률의 감소는 일본 혼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1995년의 수입식육은 4월부터의 셰이프가드(SG)문제와 7월 이후 완전히 일변한 엔하락의 영향, 게다가 한신대지진과 오음진리교사건, 거품경제붕괴 이후 막대한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 문제가 국민 소비활동을 억제해 버렸다.

한편 공급은 일본내 생산의 감소를 배경으로 수입식육의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특히 중국산 닭고기는 전년대비 160%인 20만 3,000톤을 기록

하고, 7월의 동북부의 홍수에 의해 후반에 약간 수입량이 감소되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침체되었다. 또한 쇠고기는 호주의 비용상승때문에 미국으로 이전되어 불고기 재료의 인기덕분에 냉동육이 셰이프가드를 넘어서 관세가 50%로 되돌아왔다. 총수입량도 전년대비 110%인 650,000톤으로 많았고, 돈육은 가공용 저등급수요때문에 9월에는 셰이프가드를 넘어서 11월 이후의 수입에 문제를 남겼다. 이 때문에 총수입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580,000톤대에 그쳤지만 냉장돈육의 비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일본내 생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수입식육업계는 연말에 걸친 재고증가와 정부의 엔하락 지향정책에 의해 수입업자의 채산성이 훨씬 악화되었고 소비침체로 인해 소매가격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1995년을 배경으로 1996년의 수입식육동향을 예측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본의 경제상황은 길고 불투명한 터널속에 있고, 일부 업종간에는 밝은 전망이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불투명, 불안정속에 있으며, 정치가 크게 흔들리는(선거) 해이다. 적어도 정치, 경제 모두 8월 이후에 회복이 예상된다.

(2) 그 결과 기업간, 지역도시에 경제적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고 대도시일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즉 개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3) 따라서 소비동향은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즉, 고급가치가 있는 것은 비교적 안정된 수요에 의해 유지되고, 한편으로 대중은 가격파괴의 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의 싹개 비지떡은 통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엄격한 선택기준을 갖고 있고 어중간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4) 세계경제, 기상변화는 각종 자료에서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추이가 예상되지만 축산에 있어서는 작년의 사료곡물의 재고감소, 중국, 동남아시아의 식량부족이 곡물시세를 상승시켜 일본의 생산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료메이커 및 대형축산의 개혁이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엔하락이 진행되면 그 경향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3,4월이 위험하다.

(5) 식육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되지만, 일본내 생산이 금년에도 감소되는 한편 수입 식육은 해외의 생산비 증가, 과잉재고로 인해 수입쇠고기, 닭고기가 작년을 약간 하회할 것이 예상되며, 돼지고기도 전반기는 불리하지만 6월경부터 회복되며, 혼란에 의해 전체적으로는 작년을 하회할 것을 생각된다.

(6) 그러나 식육도 싹것과 일본소와 같이 고급화의 양극으로 진행되어 한층 「질」이 요구될 것이다. 게다가 지역적 수요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소득격차가 반영될 것이다. 대도시는 가정용 식육의 소비가 감소되고 외식산업이나 조리식품에서의 식육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7) 금년의 외환은 달러상승 시정과 엔하락 유도의 효과로 105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그러나 마르크상승이 추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받아 95엔까지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수입 돼지고기

최근 수년간 작년만큼 돈육업계가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일본내 생산감소와 SG문제가 겹쳐 종래의 차액관세제도가 정착되었던 수입업무, 사재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G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종래의 타성에 의한 수입 결과 9월에는 SG를 넘어서고 말았다. 수입돈육을 포함한 일본의 돈육시장 실태를 행정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도의 급변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일본내 생산자에게 큰 희생을 가져다 주었다.

단순한 수입억제가 일본내 생산자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통구조에는 없는 것을 좋게 보는 자세가 있었다. 게다가 테이블미트로써의 가정 소비를 한층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10월에는 360엔대의 도쿄지육시세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감소, 그리고 11월의 이상수입량(115,000M/T)에 의해 종래의 수입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투명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장때문에 금년의 예측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적어도 전반기에는 수입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4월 이후에는 회복되어 조만간 셰이프가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수입량을 약간 하회하는 약 530,000M/T정도일 것이다. 그중 냉장육은 약 30%인 159,000M/T로 예상되며, 일본내 시세의 상승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수입돈육의 유통은 고전할 것 같다. 또한 일본내 시세가 가령 500엔

/kg지육 이상을 형성한 경우 테이블미트를 비롯한 가공식육 전체(돈육원료품)의 소비는 감퇴될 것이다. 즉 쇠고기, 닭고기로 이행할 것이다(표1 참조).

<표1> 1996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전망

(단위 : M/T)

돼지고기	냉장	냉동	계	전년대비
미국	72,200	20,800	93,000	-11.6
캐나다	3,500	23,500	27,000	-15.0
덴마크	400	131,600	132,000	-12.5
대만	80,520	163,480	244,000	-5.2
한국	3,000	9,000	12,000	-2.6
아일랜드	-	3,000	3,000	
네덜란드	-	3,000	3,000	
기타	100	12,900	13,000	
계	159,720	367,280	527,000	533,000

미국

최근 수년간 증산경향이었던 미국의 돈육생산은 현재 연간 약 770만에서 780만(지육)톤이지만, 금년에는 사료의 가격상승과 경제 하향 기미 때문에 국내 소비가 약간 감소할 것 같고 생산량은 보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에 중점이 두어질 것 같다. 특히,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지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일본은 냉장돼지고기를(수출 76%) 대만 다음으로 수입하고 있고, 필요부위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대만보다 우위에 있으며 금년 전반의 1~3월에는 SG문제 때문에 미국, 캐나다의 냉장돼지고기가 증가할 것 같다. 전년의 약 1.3% 증가한 93,000M/T 전후로 예상된다.

▶ 생산량(1,000M/T지육)

78,000M/T 전년대비 0

수출량 188M/T 전년대비(+)6.0%

대만

작년 11월부터의 일본의 SG문제가 금년 1~3

월까지 영향을 미쳐 중소수출업자 및 생산자의 경영을 압박하여 도태에서 살아남는 시대를 맞고 있다. 국내시세도 일본의 매입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으며 당분간 냉장돼지고기가 중심이 되고 냉동돼지고기는 4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4월 이후 대량으로 수출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육수출이 일본 한 나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자간 모두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후에 따라서는 질병발생이 예상되고 유해물질의 잔류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입은 6월경보다 회복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 생산량(1,000M/T 지육)

1,140M/T 전년대비(+)0.4%

수출량 265M/T 전년대비(+)8.6%

덴마크

대만과 함께 가장 일본의 SG문제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덴마크 및 북유럽의 냉동돈육일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베이컨용 삼겹살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아무래도 차액관세제도때문에 로스, 등심의 공급과잉이 생길 것 같다. 이때문에 일본내 수입물의 시세는 삼겹살 가격상승이 금년 전반에는 이어질 것이다.

냉동돈육의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채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다시 4월 이후 수입이 증가된다면 SG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가장 곤란한 것이 덴마크의 돈육수출업자이다.

일본의 이러한 제도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문제이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대상 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생산량(1,000M/T 지육)
1,528M/T 전년대비(+)
수출량 1,080M/T 전년대비(+)

캐나다

최근 냉장육을 포함하여 어깨부위를 조합시킴으로써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업자의 의욕이 고취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 캐나다달러/미달러/엔의 외환변동이 수출업자의 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이 없다면 생체에서의 미국 수출쪽이 안정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SG문제는 북미시장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등품을 묶은 냉동돈육이 약간 증가할지도 모른다.

- ▶ 생산량(1,000M/T 지육)
1,180M/T 전년대비(+)
수출량 320M/T 전년대비(+)

한국

일본의 경제영향을 받아 경기는 약간 침체기를 보일 것 같다. 소비도 더욱 활기를 잃고 신

장되지 않으며, 고기 전체에서는 부족한 수입국이지만 돈육은 일본의 수요가 높은 로스, 등심의 수요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그들 부위의 냉장육의 수출이 중심이 되어 작년보다 신장될 것이다.

- ▶ 생산량(1,000M/T 지육)
810M/T 전년대비(+)
수출량 12M/T 전년대비(+)

멕시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기타

덴마크와 함께 일본의 SG 문제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이들 수출국이다. 냉장돈육의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부위의 조합에 고심하고 있다.

4월 이후의 수출에 기대되지만 1/4분기의 수입경향에 의해서는 4~6월에 GS발동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교섭에 EU가 약체였다는 것과 일본의 돈육수입관세제도가 반드시 일본의 생산자보호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며, 게다가 일본의 돈육소비를 한층 감소시킨다는 이론을 주장해야 했다. 스스로 시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다.(일본 양돈 정보 96년 2월호)